

실천문학

145 가을호

시

고안나 | 곽성숙 | 김수복 | 류 경 | 박종현
박현수 | 이동순 | 이종만 | 조연향

단편 소설

백시중 | 백 영 | 이덕화 | 전진우

중편 소설

윤한룡 | 기기 보기를 색동 보듯

제29회 실천문학 신인상 발표

시 부문 당선작 | 박성우_가족의 탄생 외
소설 부문 당선작 | 이닐아_송ㅇ주를 찾습니다

특집 | K-Culture, 한국문화의 방향성 제언

서영채 | 2022년 여름, 'K-' 시대와 한국문학
오세정 | 'K-컬처'의 토대로서 옛이야기의 가치
홍경수 | <오징어 게임>에서 <우영우>까지

수필

유성선 | 정대호

서평

이승하

제 29회 실천문학 신인상 소설 부문 당선 소감



이날아

1986년 수원 출생
공주대 한문교육학과와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가지 않은 길에 대해 항상 생각했습니다. 소설 속 날카롭게 번뜩이는 문장들에 감탄하며 언제나 문학의 언저리를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미안하게도 살아남았다는 생각을 하며 힘겹게 직장을 다녔고, 언제부턴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다른 말을 내뱉으며 어디에 있어도 어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단단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리지도 지리지도 못한 채 서른다섯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혹시 내 길이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멋대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따위, 될 대로 왜 버려라 하는 심정으로 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뜯어 말려 휴직이었지, 그때 제가 던진 건 사직서였습니다. 그리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숨이 잘 쉬어집니다.

돌고 돌아 어렵게 얻은 소중한 지면을 빌어 후회와 실수로 점철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래도 감히, 소설가가 되고 보니 세계 있어 단 하루 의미 있었던 날은 그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 때, 방바닥에 엎드려 양귀자님의 <모순>이란 책을 펼쳐 들었던 그날. 책에서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한 채 단숨에 읽어 내려갔고, 책장을 덮으며 영영 울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 것일까. 안전진은 왜 나영규를 선택한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어른들의 세상

송○주를 찾습니다

1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집에서 15분이나 떨어진 식자재 마트 삼거리에서였다. 그날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다. 냉수로는 갈증을 채울 수 없던 나는 콜라를 사기 위해 근처에 딱 하나 있는 마트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10시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방에 새로 생긴 신도시라 그런지 거리엔 인적이 드물었다. 끈적끈적한 밤공기와 주황빛 가로등에 잔뜩 달라붙어 있는 날벌레들만이 밤의 부끄러움을 담당하고 있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벌컥벌컥 콜라를 들이켜고 있을 때, 분홍색 반 폴라티를 입은 누군가 걸어와 신호등 아래에 섰다.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자 단발머리에 도드라진 광대뼈, 동그랗게 쌍꺼풀진 눈. 등에는 남색 물방울무늬의 잔스포츠 가방을 메고 있었다.

사복이었지만 학생티를 감출 수 없는 앳된 얼굴. 길거리에서 처음 본 그녀의 첫인상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아마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거리에 사람이라곤 오로지 그녀와 나 둘뿐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바뀌지 않는 신호등, 답답한 공기.

시선을 돌 곳이 없던 나는 '요즘도 잔스포츠 가방이 있나?' 하는 생